

부처님 핫이슈에 답하다

현대사회의 딜레마에 전하는 붓다의 메시지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우리는 왜 명성을 얻고 싶어 하나?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어쩌다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었을까?
 생명공학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오늘날 불교가 전개되고 있는 바탕에는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빠져 있는 지구 문명이 있다. 불교는 우리가 이런 도전을 견뎌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돈과 명성에 목을 매는 이유
 논의의 출발점은 불교의 ‘무아(無我)이다. 무아는 우리가 보통 변치 않는 ‘나’라고 인식하는 게 실제로는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의 상식에 정면 도전한다. 그럼 불교에서는 왜 ‘나’가 없다고 하는 걸까?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맺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영양을 주는 음식, 생명을 준 부모, 기쁨을 주는 친구, 숨 쉴 공기를 주는 나무 등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으로 짝 짝여 있는 그물의 어느 한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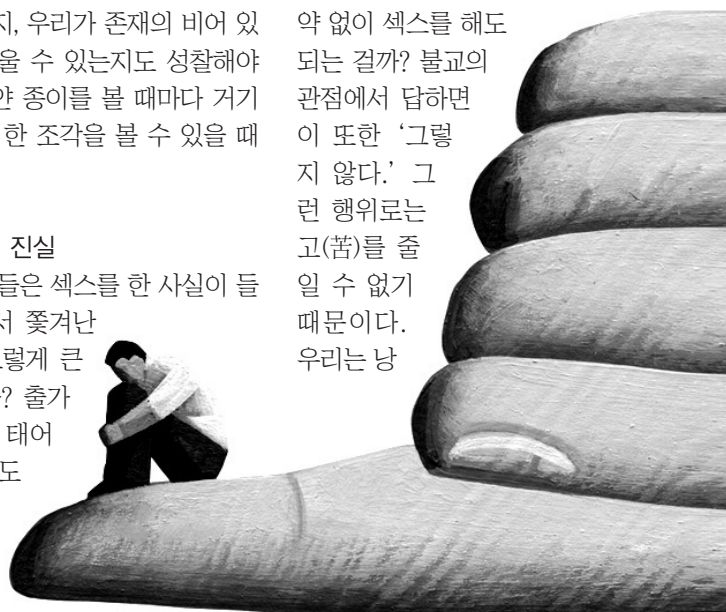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이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나’로 여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알파시나인 결과 마음에 구멍이 뚫린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극심한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 있지만 죽은 목숨”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돈과 명성에 목을 매는 건 이 둘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돈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부자나,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 유명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수단들이 진정한 치유책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걸까? 혹시 이런 노력들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우리는 ‘나’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나’가 없는데 어떻게 ‘구명’

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존재의 비어 있는 곳을 과연 메울 수 있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하얀 종이를 볼 때마다 거기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섹스의 불편한 진실
 불가의 출가자들은 섹스를 한 사실이 들 통 나면 승가에서 쫓겨난다. 왜 섹스는 그렇게 큰 잘못이 되었을까? 출가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섹스 덕분인데, 저자는 이를 알기 위해선 불교의 역사적 전



불교의 핵심은 증생의 고통 해소 돈 섹스 시간 음식 명성 등 고민 불교적 해답에 대중은 눈떠야

개 과정을 흠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섹스가 승가에 초래할 두 가지 위험을 주목한다. 하나는 섹스의 결과 태어난 아이 문제이다. 아이가 생겨나면 출가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가 일본 불교에서 볼 수 있는 가족 사업화된 사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가자들은 돈이 되는 장례식과 추도식을 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스님과 신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승가는 신도의 공양에 크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신도들이 출가자에게 더 큰 순결성을 요구한 결과 출가자의 순결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는 재가자들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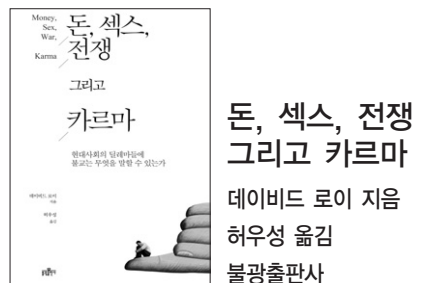
약 없이 섹스를 해도 되는 걸까? 불교의 관점에서 답하면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그런 행위로 는 고(苦)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

만적 사람이라는 신화에 빠져든 나머지 섹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적 친밀감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섹스는 자연의 속임수이고, 낭만적 사랑이란 그 속임수 위에 덧칠해놓은 정서적 광택이다”라고. 낭만적 사랑이 끝난 자리에 자녀 양육과 같은 책임만 남았을 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저자가 섹스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섹스의 장점을 인정한다. 다만 ‘섹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신화에 감춰진 ‘섹스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제안할 뿐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팔순 작가, 청각장애 부모와 대화하다



미국의 아동작가인 마이런 얼버그는 청각장애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얼버그의 가정환경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책 《아버지의 손》은 마이런 얼버그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책이다.

책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와 간질로 고통 받는 동생 사이에서 생활했던 저자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다. 그 안에는 무척이나 평범한 아프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 대목에서 배짱을 잡게 만든다. 책에 녹아 있는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슬픔과 기쁨 속에 자리한 정(情)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의 손 | 마이런 얼버그 지음 | 송재훈 옮김 | 연암서가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자전 에세이



유키와 히데키는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다. 유키와 히데키의 노벨상 수상은 세계제2차대전 직후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과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였다. 책 《보이지 않는 것의 발견》은 유키와 히데키의 학문과 인생 이야기이다. 1949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저자는 동양적 세계관과 현대물리학이 접목된 그만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회, 자신의 인생과 학문을 관조적으로 기술했다. 책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학자이자 핵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한 인간적인 과학자이기도 했던 저자의 학문과 인생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발견 | 유키와 히데키 지음 | 김성근 해설·옮김 | 김경사 | 1만4000원 조동섭 기자

마음을 깨우는 죽비소리

우담토굴 무불 스님 일상에세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참고 살아야 하는 곳이 우리네 살고 있는 사바세계라지만 좋은날은 언제였는지 하루하루 견디기를 힘들어 하는 이들이 많다. 칠곡 우담토굴에서 10년 넘게 정진 중인 무불 스님은 “인생에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항상 비례한다. 공(空)에서 보고 무(無)에서 들어라”라고 조언한다. (마음의 꽃을 피워라)는 다음카페에 인터넷 법당(cafe.daum.net/mubul)을 연 무불 스님이 1000일 기도를 하며, 1000일 일상에세이 법문한 것을 추려 엮는 책이다.

저자는 두메산골 토굴에서 정진 중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법향을 나르는 일 또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움막집 토굴에서 홀로 수행 중이지만, 경봉·성철·서암·법정·고우·무비 스님을 스승 삼아, 벗 삼고 지낸다고 말한다.

저자는 “경봉 노스님은 승속으로 할 아바지다. 다음 생에도 꼭 노스님 문하에 태어나겠다”고 말한다. “성철 큰스님은 열반승으로 나의 인생 수행법을 바꾸신 스승이고, 서암 큰스님과는 법가람을 나누는 사이이다”라고 설명한다. “법정 스님은 스님의 글을 읽고 언젠가 나도 스님처럼 글 쓰는 스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고우 스님은 한 치의 부정이 없는 청정하고 고고한 스승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들 스님과 함께 토굴서 수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불교 가훈 ‘성향(聲香) 말이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100만호 운동도 저자가 정진 삼아 전개 중인 일이다.

“경봉 노스님은 누가 찾아와 글씨를 부탁하면 성향무진(聲香無盡)이란 글씨를 자주 써줬습니다. ‘소리(말씨)의 향기가 다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사람의 말이 향기가 나면 참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인터넷 포교를 시작한 것은 무비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불림불교 대학에서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었고, 이를 정리해 《금강경 이야기》(운주사 刊)를 펴냈다.

어느날 무비 스님이 주석하는 범어사 염화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컴퓨터를 보았다. 당시 무비 스님은 허리 수술로 몸을 겨우 가누면서도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었다. 저자는 무비 스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스님처럼 노후를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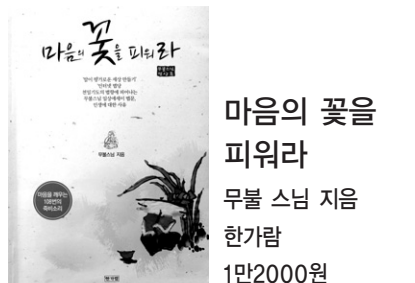
병환에도 코비드 두들기던 무비 스님 보고 인터넷포교 시작 칠곡 토굴서 홀로 정진하며 천일 기도·법문 모아 펴내

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겼다. 인터넷 카페 법당을 만들어 일상에세이 법문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병마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자는 묵언수행으로 이를 이겨냈다.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스승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부한다. 인생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네일 클로버의 행복보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는 세이 클로버가 행복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강조한다. “원력홍심(願力弘深).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인생의 가장 큰 부자이다.”

조동섭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라
 무불 스님 지음
 한가람
 1만2000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시귀 / 병귀 / 부정법미 / 산소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p>◆ 육임 학습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승용)·하(임상용) 권 45만원 · 호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호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권 제5판본 1권수륙 20만원 · 호사출산길일길시선택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수륙 30만원 · 호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륙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권판 수륙 20만원 · 월영도 2011정권판 수륙 20만원 · 성명학 2011정권판 수륙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권판 수륙 5만원 · 토정비결수륙 5만원 · 꿈해몽 5만원
<p>◆ 육임 활용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법 2011 제3판정권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제2판본 1권 15만원 	<p>◆ 기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p>◆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 프로그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사할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 350만원 120만원 · 호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륙 90만원 · 호사래정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본 전12권 수륙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륙 20만원 	<p>◆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호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별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사수첩 정가103만원 · 육임정수모음·저렴한 가격대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